

〈2020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〉

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총평

□ 심의위원회 구성

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			
1	최지윤	팀장	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교육팀
2	유다원	대표	플러스마이너스 1도씨
3	한민지	팀장	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
청년문화예술활성화			
1	우종필	팀장	은평문화재단 문화정책사업팀
2	오승환	팀장	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지원팀
3	김진환	팀장	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
예술창작			
1	조형준	실장	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실
2	최성지	팀장	성동문화재단 공연기획팀
3	사영미	팀장	도봉문화재단 문화사업팀
지역문화프로젝트			
1	최혜자	대표	문화디자인 자리
2	이민정	팀장	종로문화재단 문화기획팀
3	송태성	팀장	마포문화재단 지역문화팀

□ 심의총평 (심의위원 순위 무작위)

[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]

- 교육주체와 참가자 간 교감이 가능한 프로그램 및 계획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함. 단순 교육의 전달보다는 운영 주체의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 참여자들이 문화예술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함.
- 지역의 특성, 참여자들에 대한 해석 혹은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한 팀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음. 기존에 관습적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세부 프로그램 계획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아쉬웠음.
- 기능 위주의 교육보다는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인지 지역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평

가하였으며, 대상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, 방식 여부 및 사업운영 예산 책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.

[청년문화예술활성화]

- 강북구민의 참여를 사업내용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사분야의 경우보다 사업내용이 충실한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함.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대중성이 결여된 주제, 개연성이 부실한 경우는 좀 아쉬웠음.
- 새로운 시도를 하는지, 강북 지역과 밀착해보려는 시도인지를 평가함. 이번 공모사업을 통하여 누구든 접할 수 있고,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예술에서 벗어나, 보다 세밀한 대상 타겟팅 등 작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리서치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지역에서의 호응을 얻거나 지역에서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 등의 전체적인 활동의 의미를 크게 찾을 수 있었으면 함.
- 건강하고 젊은 예술가들이 많은 강북지역의 특성을 볼 수 있었음. 청년의 장점인 실험과 도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업이 많았고, 여전히 어려운 예술 창작 환경에서 나름대로 알뜰한 예산 계획을 세워 창작 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보임.

[예술창작]

- 전체적으로 지원자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 같아서 보기 좋았음. 그러나 추후 사업 확장성과 효과에 대한 고민들이 전체적으로 약해보임.
- 지원한 팀들 전반적으로 사업 운영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 작품이 선정되면 바로 실현가능하고 운영에 있어 신뢰가 가는 팀들을 선정하고자 하였음.
- 작품들에 대한 현실성과 운영 계획이 명확한 팀들을 선별하고자 하였음.

[지역문화예술프로젝트]

- 지역에서 예술가 개인과 단체들이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주체들을 발굴한 것 같아 앞으로도 강북 문화예술의 긍정적인 면을 엿 볼 수 있었음. 지역문화프로젝트의 경우 장르가 예술교육에 가까워 아쉬운 프로젝트도 있었고, 청년예술활성화에 가까운 프로젝트도 보여서 지역문화프로젝트 취지에는 조금 벗어난 작품들이 있어 아쉬웠음.
- 전체적으로 사업 취지와 내용은 좋으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보이지 않아 아쉬운 팀들이 많았음. 사업 운영진이나 기획자가 붙어 사업을 더 원활히 해줄 수 있는 장치들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음.